

# 숲 체험·녹차 족욕... 보성 웰니스 관광지에서 힐링하세요

###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4년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할인캠페인 추가 시행에 다음달까지 80% 할인...매주 화·목·토·일 이용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위치한 '친환경 힐링센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 전남권관리센터)가 할인캠페인을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할인캠페인은 전남권관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사업'에 4년 연속(2021~2024년) 선정돼 지난 6월 시행했던 할인행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둬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 번 더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시행기간은 내달 말까지이다.

캠페인 기간 중 할인권 구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기어때'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검색' 선택 → '레저·티켓' 선택 → '숲 힐링 체험' 검색 → 할인쿠폰 내려받기 → 일정 선택 후 할인 금액으로 결제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전남권관리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은 '친환경제품 만들기'·'숲 체험'·'녹차 족욕' 등으로 구성됐다. 또 할인캠페인 기간 이용 가격은 정상이 3만원에서 80% 할인된 6000원으로 제공되며, 체험은 매주

화·목·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고품질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 여행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매년 전국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친환경 힐링 숙박시설, 맥반석·황토찜질방, 녹차탕, 산소방, 치유 명상실, 야외 족욕 시설 등이 있으며, 보성의 특산물인 녹차를 활용한 명상, 다도 체험, 환경성 질환 교육, 기초 검진, 친환경 음식 만들기, 천연 염색 체험, 숲 체험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할인캠페인을 추가 운영한다. 이용객들이 숲해설과 함께 숲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보성군 제공)

## 순천만 갈대축제 2만4000명 다녀갔다

### 대중 참여 프로그램 인기...짱뚱어 마라톤 대회 등 인기



순천만 갈대축제가 이틀간 방문객 2만4000여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순천만 갈대축제 프로그램인 '소원글쓰기'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만갈대축제가 이틀간 방문객 2만4000여명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순천만갈대축제 '새 보고, 갈대 보고, 순천 보고'를 주제로 야심차게 막을 올렸다. 이번 축제는 개막식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순천만의 공간적 특성을 감안해 대중이 즐겁게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출입통제 시간에 원시적인 순천만과 교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탐사르길 걷기 대회·제2 페스타를 연계하여 탐방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높였으며, 전 연령층이 참여하는 짱뚱어 마라톤 대회와 순천만 탐조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사전 예약을 받아 새벽과 야간에 '무진선상투어', '백패커의 밤', '갈대 숲 별빛 데이트'는 60% 이상이 타 지역 거주자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순천만의 자연물을 이용해 만든 순천만 보전역사 전시와 다양한 체험판매 부스도 운영되며, 황금빛 갈대숲에서 펼쳐지는 클래식과 친환경 버스킹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탐방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10월의 순천만을 선사했다.

시는 축제 폐막 이후에도 순천만 여행이 시작되는 시즌임을 감안해 포토존으로 활용도가 높은 친환경 갈대축제 무대와 흑두루미 소망터널 한지등, 소원글쓰기, 순천만 보전역사 전시물은 그대로 남겨 놓을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 갈대축제를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결과를 분석해 향후 상설 프로그램화 시키고 순천만이 가야 할 생태축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구례 초등생들 '값진 수확 체험'

### 광의초 학생 36명 직접 수확한 쌀 20포 저소득 가구 등 전달



구례군 광의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직접 재배해 수확한 쌀 10포(20kg짜리)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례에서 고사리손으로 수확한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뜻깊은 운정'이 전해져 화제이다.

구례군 광의초등학교 농촌 유학생(16명)과 지역 학생(20명)들은 지난 23일 학교 인근 농지에서 수확한 쌀을 직접 기른 쌀을 독거노인들과 저소득 가구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랑나눔의 주인공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봄부터 함께 벼농사를 지으며 농업의 소중함

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값진 수확을 체험한 학생들은 소중하게 모은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자 자발적인 기탁에 나섰다.

이번 쌀 나눔은 광의초등학교와 함께 지역의 신농법인회사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광의초 아이들이 수확한 쌀 20kg짜리 10포와 신농법인회사가 기탁한 10포, 총 20포의 쌀이 구례 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여수 '섬 드론배송' 다음달부터 섬→육지 역배송

### 개도 참전복점·돌문어숙회 등 돌산 소재 호텔·리조트 5곳에

여수시의 섬 드론배송 서비스 범위가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여수시는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섬 드론배송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육지에서 섬으로 보내던 배송사업을 섬에서 육지로 보내는 역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도 특산품인 참전복과 돌문어를 찜과 숙회로 요리해 육지의 JCS호텔·라마다호텔·노블호텔·다이아크리조트·스톤아일랜드 등 돌산 소재 호텔·리조트 5개소에 배송하게 된다. 역배송 서비스는 매주 금·토요일 2일씩 하루에 4회 정도 배송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재 여수제일선협 등이 시행하고 있는 섬 내 경로당 대상 후원 물품 배송사업,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해 반찬배달서비스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모사업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의 드론배송 사업은 송도, 대·소두라도, 대·소횡간도, 제도, 상·하화도, 금오도 등 관내 섬지역 10곳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주 2회 시행하고 있



여수시가 다음달부터 섬 드론배송 서비스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배송 전 준비작업 모습. (여수시 제공)

다. 배송 물품은 5kg 이하 생필품·의약품·배달음식·선박 수리용품 등이며 배송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원·도비 1억 2000만원·시비 4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돌산 진모·작금항, 화정면 개도에 드론이·착륙장과 관제 등 배송거점을 마련하고, 배달점·드론상항실 등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이용자는 배송앱이나 배송사업체 전화로 주문·예약 후 도착 알림 메시지를 받으면 지정된 배달점에서 찾으시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드론배송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면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섬 드론 배송 상용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chkim@

## 광양시립국악단, 일본서 '창작국악의 진수'

### 오사카 전라남도 도민회 초청...31일 국악관현악 산조합주 등

광양시립국악단이 오는 31일 일본 오사카에서 창작국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오사카 전라남도 도민회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국악단원 40명이 현지에서 마련된 '제2회 전라남도의 향기' 스페셜 무대에 오르게 된다.

국악단은 이날 오후 6시 '크레오 오사카 중앙홀'에서 '뿌리 깊은 나무·샘이 깊은 물'을 주제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작곡가 겸 지휘자인 류형선 예술감독이 올해 4월에 취임한 이래 추진된 첫 해외 공연이다. 류형선 예술감독은 취임과 함

께 '창작국악의 거점 국악단'이라는 새 비전을 제시했으며, 광양시립국악단원들은 이를 기치로 삼아 총출동 연습 일정을 소화하며 기량을 갈고닦아 왔다.

광양시립국악단은 창작국악의 정점을 포획한 수준 높은 작품들을 10월의 마지막 밤, 오사카 문화예술중심지에서 60분 동안 연주한다.

무대에서 연주되는 주요 작품들에는 지휘자와 악보 없이 오로지 연주자들만의 호흡으로 합을 맞추는 '국악관현악 산조합주', 창작국악의 예술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국악 실내악 '미로', 광양시립국악단 연희단원들의 밀도 높은 기량을 선보일 설장구 협주곡 '마침내 바다'가

있다.

초청공연인 만큼 뜻깊은 순서도 준비돼 있다. 남광일 오사카 전라남도 도민회장이 일본 동요 '고추잠자리' 연주를 요청함에 따라 류형선 감독이 해당 동요와 '아리랑'을 접목해 편곡한 곡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류형선 예술감독은 "기초 지 자체 소속 국악단의 일반적인 관행에서 볼 때 소화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로 공연을 구성했다. 광양시립국악단은 그만한 도전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기량을 이미 품고 있는 단원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립국악단원들에게는 '창작국악의 거점'으로 본인들을 규정해야 하는 이유의 명징한 체감이 될 것이다. 한편 오사카에 거주하는 전라남도 도민에게는 창작국악의 폭과 깊이가 얼마만큼의 스펙트럼을 품고 있는지를 견실하게 맛볼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새마을회,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 참여자 170여명 대상...교통안전·응급상황 대처요령 등

곡성군새마을회는 최근 곡성군민회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교육과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크게 기본교육과 안전교육으로 구성됐으며, 활동시간 준수, 근무일지 작성법, 부정수

급 예방 등 일자리사업 참여 기본 지침을 비롯해 생활안전, 자연재난 대비, 교통안전, 보건·산재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참여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와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했으며, 쉽고 명확한 설명으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 또 참여형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향상시켰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

고흥군, 명예 '천경자예술길' 지정

고흥군은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천경자예술길' 명예도로명칭을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 공헌도와 공익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간은 고흥읍 중심부의 봉황길과 옥상길을 거쳐 천 화백의 생가가 있는 옥상마을 일대까지 851m에 이른다. 생가와 인접한 이 구간은 천 화백의 삶과 예술적 배경을 재조명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